

영화의 모든것 만끽...연간 80만명 즐기는 '시네마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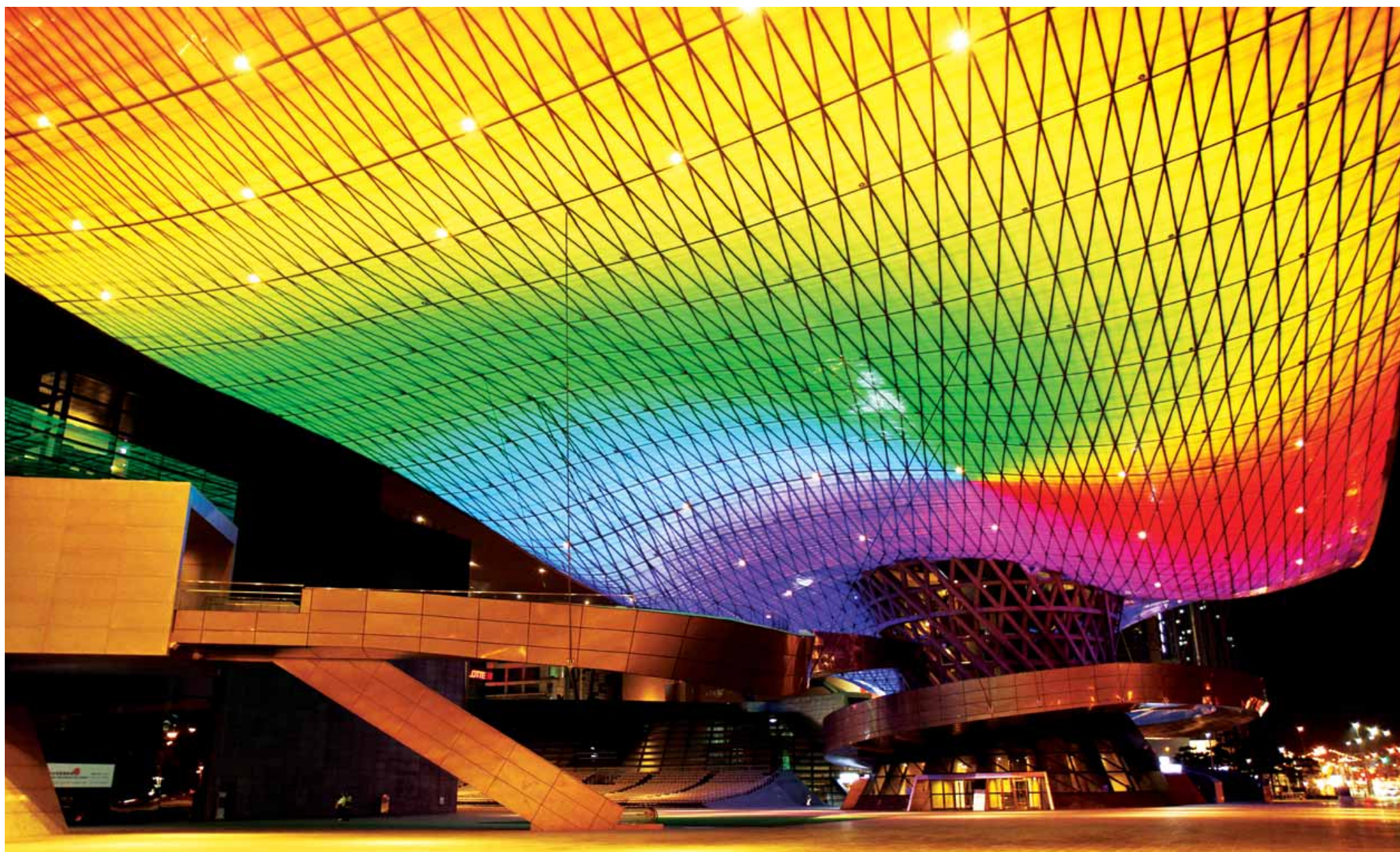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8〉 부산 영화의전당

3개 상영관 상업·예술영화...골라보고
부산영화제 전용관 및 개·폐회식장선
매주 시민 대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영화제작워크숍 청소년 7000여명 수강
시나리오부터 시사화까지 제작과정 배워



부산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이고 있다.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영화의전당 빅 루프는 낮에는 웅장함으로, 밤에는 LED 조명의 화려함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영화의전당 제공>

“대학생인 형 지우가 먹을 것을 놓고 중학생인 동생 현우와 싸우는 장면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난위험상황이지만 빵을 동생한테 양보하지 않는 형의 모습은 너무 어린 아이처럼 보여요”

“방사는 유출과 같은 재난 영화는 사실 새롭지 않은 주제예요. 시나리오상의 대피소(지하벙커)를 찾는 것도 그렇고 밀폐된 공간에서 조명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BIFF HILL) A 강의실. 20~30대로 보이는 수강생 20여 명이 강사 전인룡(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팀 과장)씨와 함께 시나리오 '대피소'(가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강생 최영서씨의 아이디어인 '대피소'는 부산에 방사능이 유출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부산의 한 지하 벙커로 피신한 두 형제가 여러 갈등을 겪는다는 줄거리다.

이날 수업은 지난 6월24일 부터 매주 토·일요일(오후 6시·총 50강)에 열리고 있는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FULL HD 영화제작 워크숍(8기). 수강생들은 오는 12월 25일 까지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영화의 전당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촬영, 편집, 색보정, 시사화까지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1~2주의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3편의 시나리오를 선정 후 채택된 시나리오를 기획한 수강생 3명이 감독을 맡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3팀으로 나눠 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등 스태프로 참여해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영화의전당은 내년 초 이들의 모든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을 영화의전당 상영관에서 공개시사회를 하며 우수작품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영화제작워크숍 강좌는 부산 영화의전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개·폐막식 행사장쯤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영화제가 열리는 10여 일 기간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기간은 개점 휴업이지 않을까 하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한 여름 기자가 둘러본 영화의전당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그 어떤 곳보다 뜨거웠다. 영화제기간이 아니지만 상업영화 상영에서부터 야외 영화 상영회, 야외콘서트, 시니어 극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화제작교실.



야외극장(4000석)에서 열리는 영화상영회.

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골라 보는 재미는 영화의전당만의 매력이다. 중극장(413)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인 '부산행' '덕혜옹주' '국가대표 2'와 같은 상업영화가, 소극장(212)에서는 '이레서날 맨' '나의 딸' '버거 스프래쉬' '마일스' 등의 예술영화가 각각 상영된다.

국내외 고전영화를 한자리에 선보이는 시네마테크에서는 8월 한달 동안 '깊고 푸른 밤' '칠수와 만수' '개그맨' 등 80년대 한국영화를, 지난 5월 개관한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플러스에서는 '서울역' '그림자들의 삶'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시네마천국이 없다. 특히 예술영화는 시네마테크팀(10명)이 직접 해외로 부터 우수한 작품, 그것도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없는 미개봉작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연중 영화제를 즐기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 출연기관 영화의 전당 올해 예산은 약 120억원. 60~70%를 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

그렇다고 영화의전당에 영화만 있는 건 아니다.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에는 매주 토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 콘서트가 열리는가 하면 마티네 콘서트(매주 화요일 오전), '배우·감독과의 대화', '영화비평교실', '영화평론가 김혜리·이동진의 영화산책', '세계영화촬영감독 열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작교실' 스마트폰 영상제작 '영화읽기',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극장' 등이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일반인 수강생 2700여명, 청소년 7000여명 등 1만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상영 덕분에 80만 명이 영화의전당을 방문한다.

영화의전당 정금용 경영기획부장은 “영화의전당은 다양한 이론과 실기 강좌를 통해 영화의 저변인구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부산영화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핵심 인프라로서 연중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부산 영화의전당은?

9층 시네마타운·비프힐·야외극장 갖춰 축구장 1.5배 크기 화려한 빅 루프 볼거리

지난 2011년 9월 개관한 영화의전당은 부산영화제의 전용관이자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영화의 전당은 낮에는 웅장함으로, 밤에는 화려함으로 변신한다.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인 오스트리아의 '콥 험벨부라우'사의 설계안으로 건립된 국내 유일의 해체주의풍 건축작품으로 9층 높이의 시네마타운, 사무실과 자료실이 들어서있는 비프힐(BIFF HILL), 야외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의전당 핵심 건물인 시네마타운에는 3개의 영화관(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과 1개의 공연장(하늘연극장)이 자리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영화의전당에 들어서면 축구장 1.5배 규모(길이 163m, 너비 61m)의 빅 루프가 시선을 압도한다. 특히 야간에는 빅 루프

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인근의 수영장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시각각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빅 루프의 야경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외광장에 설치된 10.2m 높이의 대형 조각상은 영화의전당의 아이콘. 독일 작가 랍프 산더의 작품으로 한쪽에서 보면 부산시를 상징하는 갈매기, 다른 쪽에서 보면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장으로 사용되는 야외극장은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자 공연장. 가로 24m, 세로 13m인 스크린은 고정식 야외스크린으로는 국내 최대 크기다. 주말과 휴일에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음악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또한 단·장편 영화의 편집장비와 출력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 총 1만8794종의 영화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부산=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이태리소파·식탁 대전

신상품 다량 입점 8월 25일까지

홍스페이스 SINCE 1990 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